

# 동국대 불교대학 세계불교학 연구 중심 되길 발원

## 동국대 불교대학장·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

서울 한복판인 중구 남산 자락에는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에서 불교대학은 수많은 불교학자들을 배출한 요람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원장 계환 스님은 교수로 수십 년간 활동하면서 후배 학인스님들과 재가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3월 19일 옥북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이 후학양성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계환 스님을 만나 대담을 진행했다.

Q: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보시느라 너무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대학부터 박사학위까지 오랫동안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흔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으로 가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A: 처음부터 일본에 갈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재학 중, 일본에 가기로 한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겨 대신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외국에 나가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시대였고, 일본 경도에서 유학하는 일반학생들은 있었지만 비구니스님은 그때 저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됐습니다. 일본학생들에게만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했습니다.

Q: 현재 스님께서서는 종립대학인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비구니스님께서 이런 소임을 맡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스님의 뛰어난 역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구니 스님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요? 현재 동국대에 비구니 스님으로서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A: 앞서 해원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인 역량이 아닌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본교에만 3명의 비구니 교수스님, 그리고 몇 명의 겸임교수와 강사스님 등 20여 명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잠재된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스님께서서는 불교대학장이자 불교대학원 원장 소임을 3년째 맡고 계신데요, 운영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올해 불교대학 발전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A: 학장은 대학의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대학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학생만족을 위해 무엇을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부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장학금이나 발전기금 모금을 하는데 찾아다니며 사정애기를 하고 CEO과정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소 힘든 일입니다.

발전계획으로는 올해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왕립대학, 대만남화대학, 스리랑카 국립대학, 몽골 국립대학, 인도 델리대학, 일본 대정대학을 비롯해 여러 불교대학과 중국의 북경대학 등 여러 대학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

총장회의를 비롯해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첫째는 건학이념 구현 및 국제화수준 제고를 통한 불교관련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동아시아 불교관련 학술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한 동아시아 불교대학연합이 그 일환입니다.

셋째는 동국대 불교대학을 세계불교학 교육연구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Q: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 스님들께서 가장 많이 공부하시는 대학이고, 스님께서서는 출가자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도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비구니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앞날의 비구니지도자를 양성하는 큰 역할이십니다. 처음부터 교육에 뜻을 두셨나요?

A: 사실 제가 동국대에 다닐 때만 해도 비구니 스님 교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재학 당시 불교대학에 스님교수는 윤학·지관 스님이 계셨고,

### 건학이념 구현 및 국제화수준 제고, 불교관련 복수학위제 시행할 터 동아시아 불교대학 연합회 추진...학술 네트워크 구축 교류 활성화 "비구니스님들 잠재된 역량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해요"

선원장(現 정각원장)으로 탄허 스님이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재가자 교수들이었습니다. 초발심 때는 신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정진 해 오신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배우는 대상이 스님들이라면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도 스님교수일 것으로만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교육은 스님교수가 담당해야 한다. 그래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Q: 스님께서서서 학장 소임을 맡기 이전부터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해오셨는데도, 불교학은 종교와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가 녹아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A: 불교는 먼 곳에 고원한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상에서 시작되고 일상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자연히 어렵게 얘기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도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도 어둠속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듯이 불교가 내용상 갖추고 있는 훌륭한 교학체계를 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출가자로서 또 학자로서, 지도자로서 한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요, 가장 보람이 크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A: 어떤 한 가지 일에 보람을 느끼기보다, 매 순간순간에 충실해지는 소신으로 살아왔다고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됩니다.

명나라 황순요의 <자감록(自鑑錄)> 가운데 "내가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는데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되고, 내게 부끄러움이 없는데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Q: 요즘은 '알파걸'이라고 해서 대학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성적과 활동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A: 요즘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추세

가 승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불교대학 수석은 비구니스님들이 매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적도 비구

스님보다 비구니스님들이 더 좋습니다. 대학원으로 오면 이 비중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이유를 보면 쓸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부만 나와도 문호가 다양하게 열려있는 비구스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호가 열려있지 않은 비구니스님들은 학문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스님은 어떤 발원을 가지고 계신지, 또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일러 주십시오.

A: 산에 오를 때는 한걸음 진땀 흘리며 힘겹게 오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싶지만 좀처럼 정상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올라갈 때 힘들던 높이가 순식간에 휘휘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하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선원을 쌓아 궁덕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는 평생 이룬 것을 단번에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한걸음 땀 때마다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듯이 우리 불자들이 하루하루의 정진 수행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환 기자 wanhohlo@hyunbul.com



계환 스님은 ... 운문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하나조노(花園) 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교토 불교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자 불교대학장과 불교대학원 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서울 원교사(圓敎寺)에서 청년법회(화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옮기거나 집필한 책으로는 <중국불교사> <화엄사상사> <홍명집> <일본불교사> <고려대장경 연구> <공저> <경전산책>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 <공저> <중국화엄사상사연구>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왕초보 경전박사되다> <대승불교의 세계> <현수법정연구> 등 다수가 있다.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DX-707 스텐드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성능 탁상마이크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 高音質 무선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